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P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Poll Survey

배종찬

Jong-chan Bae(리서치엔리서치 본부장)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구성과 조사 결과의 활용에 있어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국민과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방식은 현실적인 체감 만족과는 상당한 격차를 느끼게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첫째로 설문기획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성격의 설문 구성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모르는 응답자들이 '잘하는지와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기 척도에서도 응답자의 응답가능성을 기초할 때 4점척도 보기 구성보다 5점척도 보기 구성이 타당함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로 통계분석 측면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문항(잘하는 지와 못하는 지를 응답하는 문항)과 정책관련 문항,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물어보는 문항과의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결국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설명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음'은 언론 매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자체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결과값과 비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대통령 지지도, 국정수행, 여론조사, 정책 결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wly developing ideas to compose an appropriate question and to point out the present problems in the utilization of survey result. It is very vital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not only to be a political achievement of the President himself, but also to be a influential base of people-related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t first, it turned out to be inappropriate to make a question for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in the perspective of questionnaire planning. As the respondents were not informed of what the President did, so they were more likely not to know whether the President did well or not. Secondly, the correlation analysis has been made between the evaluation question of the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and policy-related questions including the direct one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n the aspect of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the evaluation of the presidential working performance is not accountable and the direct question for the presidential preference is at best explainable. In conclusion, it seems more persuasive to compare the statistical outcome of the presidential preference which has been derived of to the high rating what the respondents think comprehensively not depending on a subjective decision by mass media.

Key words: presidential preference, presidential performance, survey, decision making

I. 서론

현재 많은 정치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실시하는 정기여론조사에서도 '선생님께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묻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는 반응을 보인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선 철학적 개념 정립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대통령 국정 수행을 파악한다는 것이 무엇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떤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함의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또는 검증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는 조사되는 질문 내용의 단순성과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묻는데 있어 지금처럼 단순히 1개의 문항으로 물어보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각 조사기관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유형이 다르고 설문지상에 배치되는 위치도 처음 또는 끝이거나 어떤 질문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문항 앞에 위치하는 지도 제 각각이다. 셋째로는 국정 수행 지지도를 응답자들이 평가할 때 선택하는 척도의 적절성이다. 대부분의 국정 수행 지지도 설문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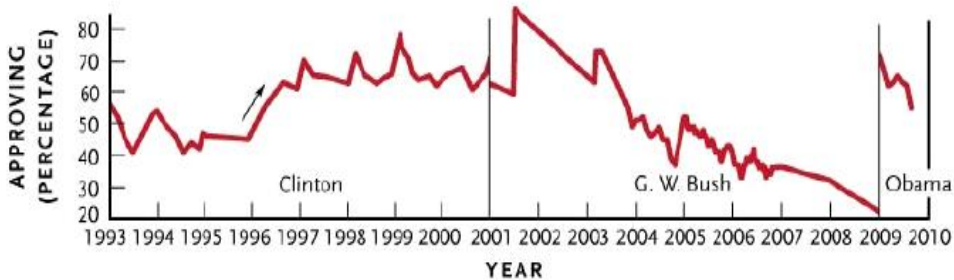
항은 긍정 평가를 의미하는 2개의 선택지와 부정 평가를 의미하는 2개의 선택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리커드 4점 척도 측정 방식에다 무응답자에 대한 강제분류(그래도 잘한쪽에 더 가까운지 잘못된 쪽에 더 가까운지 말씀해 주십시오.)가 적절한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검증이 부재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긍정평가가 몇 퍼센트이고 부정평가가 몇 퍼센트이다’로 기술됨으로써 어떤 수준 정도가 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 결과와 조사 시점의 대통령의 행위와는 어떠한 상관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자의적인 해석이 양산되어 왔다.

실제 사례로 2006년 중앙일보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와 같은날 티엔에스(TN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차한계($\pm 3.7\% \sim 4.4\%$)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허명희 외, 2003). 같은 시기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마저 그 결과가 다르다면 그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라는 중요한 국정 평가 지표가 단순히 언론 보도용 참고자료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한다.

- 첫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응답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긍정 또는 부정평가를 하는 것인가?
- 둘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지’라고 묻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 셋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의 결과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 또는 낮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II.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의 의미

과연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대통령 지지도는 정치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의 해석을 모두 시도할 수 있다. 정치적인 해석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지지도 추이 분석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실패한 대통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재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내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빌 클린턴 vs 조지 부시)

출처: American Government 11th edition. W.W. Norton & Company.2010.

〈그림 1〉의 경우처럼 클린턴은 재선되는 시점이나 재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거의 6~7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의 경우, 재선되는 시점과 임기말 모두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며 급기야 정권을 민주당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 그림을 볼 때 대통령 지지도는 직관적으로 대통령 개인을 평가함에 있어 성공한 대통령 또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나누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평가에는 다분히 국민들의 객관적인 국정수행 평가가 시도되기 보다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적인 지지여부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내몰렸던 1997년에도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향 추세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급상승 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 차원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 힘들며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층이 보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전폭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클린턴 대통령을 이어 집권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경우 2기 집권시에 대테러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의 정책 향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재선시점에 ‘반짝 상승’하는 정도 외에는 8년 임기 마지막까지 줄곧 지지도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강경태, 2004). 급기야 20%미만의 낮은 지지도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당하고 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대통령 지지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가상준의 2005년 논문에서도 나오듯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을 경우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지지도가 낮을 경우 대통령의 활동과 계획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지지도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경우를 보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같은 대통령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2〉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와 주요 정책 이슈를 비교해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을 경우에는 정책 추진의 동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2〉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2008년 11월~2009년 12월)

출처: 리서치앤리서치 정기여론조사, 전화면접조사 전국 800명.

이처럼 대통령 지지도는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로서도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면 실사(fieldwork)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전문기관과 조사 결과를 독자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 미디어는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좀더 정교하게 조사하고 보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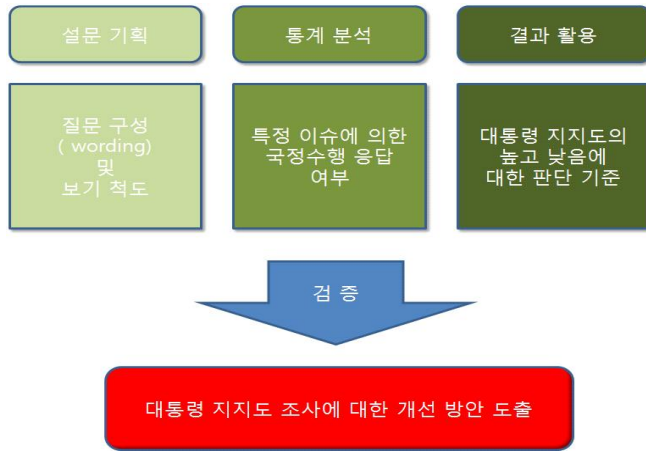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치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현행의 여론조사 및 결과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설문기획에 있어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의 구성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도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조사로 명칭하고 질문의 구성은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묻고 있다. 여기서 가지는 문제 제기는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의 응답에 있어서 현행 다수의 조사들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고 있다. 즉 ‘매우 잘하는지’,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인지’, ‘대체로 잘못하고 있는 편인지’, ‘매우 잘못하고 있는지’의 4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기 했듯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내용 조차 모르는 응답자들에게 긍정과 부정 어느 한쪽으로의 응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자율적인 의견 청취라기보다는 강제적 도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 5점 척도로 측정할 때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응답’이라는 여론 조사의 취지에도 더 맞아 보인다. 설문을 부여하는 쪽에서 활용가치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할 경우 응답자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응답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크게 무관해 질 것이다(허순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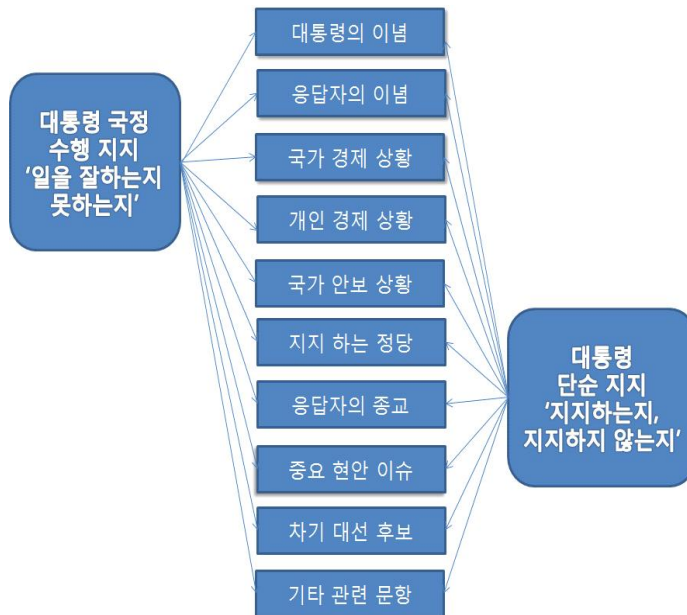
둘째로 통계분석측면에 있어 대통령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과 대통령 지지도와와의 상관성을 비교해 보았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국민들이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 상황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시각(가상준, 2003)과 경제적 요인이 대통령 지지를 설명하는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이 되진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이근수, 2009). 이처럼 대통령 지지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또는 비경제적 요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과 부정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지는 실제 개별 정책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과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을 통해 응답자들의 긍정과 부정평가가 전적으로 특정 이슈에 의해 귀결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것보다는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속성이 더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의미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대통령 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가에 대한 실질적인 답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과활용 측면에서 어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식화된 상대적인 비교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지율이 45%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이것을 높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낮다고(어쨌거나 긍정 의견이 50%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은지는 그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확히 측정해거나 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 조사 결과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높다고 인식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정도’ 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체로 대통령 선거에서 그 후보가 득표한 비율을 전체 국민 유권자(여론조사가 대체로 선거권을 지닌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의 비율로 나눈 것이 최대값이 될 것이다. 후자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과 같은 조사의 응답자들이 인식한 ‘높은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관계를 모형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구 모형

특히, 통계분석에 있어서 특정 정책 이슈가 대통령 지지의 긍정과 부정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상관분석 모델을 별도로 제시한다.



〈그림 4〉 상관 분석 모형

2. 설문 구성

연구 모형을 토대로 <표 1>과 같이 설문을 구성하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문항을 포함한 실험 조사를 실시했다.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응답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는 경제상황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질문을 포함하였다(가상준, 2003). 그 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안보 상황(남북관계와 외교 관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과 관련된 내용과 주요 현안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대통령 ‘단순 지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요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통계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표 1> 설문 구성

구성요소	변수	질문
인구 특성	지역	귀하는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성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연령	귀하의 연령은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직업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생활수준	귀하의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종교	귀하는 어느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 문항	대통령 국정수행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이념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진보적이다가 0, 가장 보수적이다가 10)
	응답자 이념	귀하는 본인의 이념은 어디에 위치한다고 보십니까?
	국가경제상황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인경제상황	현재 개인의 경제 상황은 어떠십니까?
	국가안보상황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지 정당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차기 대선	귀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뽑으시겠습니까?
	주요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습득 경로	정치관련 정보를 어느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으십니까?
대통령 지지도	귀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3. 자료 수집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응답자 모집단에 대한 포함범위(coverage) 문제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실험 조사는 휴대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휴대폰 RDD 1000명 조사였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pm 3.1\%P$ 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아산정책연구원과 실시하는 정기조사 설문에 옴니버스 조사 형태로 자체 설계한 문항을 통계 분석한 자료이다. 2 차례에 걸쳐 실험 조사를 한 이유는 옴니버스 조사의 특성상 한번에 많은 문항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조사 성격을 고려하여 두차례로 나누었다. 두 번에 걸친 조사의 설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조사 개요

	1차 조사	2차 조사
조사 방법	휴대폰 Random Digit Dialing	
조사 샘플수	1,000명	1,000명
조사 기간	2011년 9월 14일~15일	2011년 10월 11일~12일

IV. 자료 분석 결과

1. 설문 기획 측면

1) 설문 형식의 오류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는 많은 설문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문항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제는 응답자들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1차 실험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에게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인지 여부를 물어 보았다.

〈표 3〉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부정 평가 및 대통령 직무에 대한 인지 여부 1차 실험 조사 [단위: %]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부정	매우 잘함	다소 잘함	다소 잘못함	매우 잘못함	무응답	긍정	부정
		5.6	28.0	37.0	22.3	7.1	33.6
대통령 직무 인지여부	상세한 내용까지 매우 잘 알고 있음	대체로 알고 있는 편에 속함	대체로 모르고 있는 편에 속함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음		인지	비인지
		2.3	54.4	34.3	9.0	56.7	43.3

〈표 3〉의 조사 결과와 같이 대통령 직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전체응답자의 56.7%에 그쳤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의 92.9%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를 결정하여 응답해 주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상대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긍정과 부정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설문문의 구성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는지 여부를 물어 본 것이므로 대통령의 일을 응답자들이 모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설문문의 구성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로 물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응답자 개인들은 응답하는 순간에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을 평균화하여 답변하게 되며 핵심적인 사항들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인데 아예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균형된 답변이 불가능할 것이다(John Zaller and Stanley Feldman, 1992).

2) 척도의 오류

설문 구성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다른 요소는 바로 척도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사회조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법 중의 하나가 바로 리커트(Likert) 척도이다. 현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 사용되는 리커트 척도는 4점 척도(매우 긍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매우 부정)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통령 국정 수행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응답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밝히는 응답이라면 4점 척도 방식이 타당한 것일까? 여기에는 우선 두 가지 고려가 있어야 한다. 첫째는 리커트 척도는 등간점수를 부여하는 임의배정법이며 서열 척도이기 때문에 절대 영점을 이동하여도 무방하며 서열 순서의 의미만 유지하면 되는 방법이다(이정호, 2007). 즉 대통령 지지도는 국정수행의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응답자 개인 자격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를 밝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매우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지 강도를 설명해 주는 구분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응답회피 이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 여부에 있어 ‘중립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가? 리커트 척도가 서열 순서의 의미를 유지하는 서열 척도이므로 다음의 <그림 5>와 같이 ‘대체로 지지’와 ‘대체로 지지하지 않음’ 사이에 중립적인 등간 점수의 부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리커트 5점 척도 방식의 대통령 지지도 측정

2차 실험조사에서 4점 척도로 구성된 대통령 지지도 문항의 응답자들이 5점 척도에서는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대통령 지지도 비교: 4점 척도 vs. 5점 척도

		대통령 지지도(5점 척도)						전체
		매우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무응답	
대통령 지지도 4점 척도	매우 잘하고 있다	40	29	9	0	0	2	80
	다소 잘하고 있다	11	132	97	8	2	4	254
	다소 잘못하고 있다	0	6	101	160	22	5	294
	매우 잘못하고 있다	1	0	9	62	148	0	220
	무응답	4	16	75	34	8	15	152
전체		56	183	291	264	180	26	1000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4점 척도의 지지도 문항 보기에서 ‘다소 잘하고 있다’를 선택한 97명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소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이나 되었다. 5점 척도에서는 긍정 비율이 23.9%에 그쳤고 부정비율은 44.4%에 달했다. 이것을 볼 때 기존의 4점 척도 방식은 지극히 응답자의 판단을 강제적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면 실질적인 긍정과 부정비율을 좀더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통계 분석 측면

본 연구의 1차적 목표는 대통령 국정수행 측정 문항이 과연 특정한 판단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2차적 목표는 실제로 응답자들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응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곤수(2009)는 대통령 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로는 국가 경제상황, 경제정책 평가 등의 경제적 요인 변수와 정당지지 등의 비경제적 요인변수 그리고 연령과 학력 등의 개인 속성 변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실험조사의 상관성 분석 결과인 <표 5>을 보더라도 특정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를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한 대통령 국정수행 문항과 관련 문항과의 상관성은 다음에 제시하는 <표 5>과 같다. 이 상관성 분석은 1차 실험 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표 5> 대통령 국정 수행 문항과 정책 관련 문항의 상관성

		대통령국정운영평가
대통령국정운영평가	Pearson상관계수	1
	유의확률(양쪽)	
	N	1000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Pearson상관계수	.146**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본인의 이념	Pearson상관계수	-.010
	유의확률(양쪽)	.740
	N	1000
현 국가경제상황평가	Pearson상관계수	.265**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현 개인경제상황평가	Pearson상관계수	.106**
	유의확률(양쪽)	.001
	N	1000
현 국가안보상황평가	Pearson상관계수	.134**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현 지지정당	Pearson상관계수	.220**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다음대통령선거 지지후보	Pearson상관계수	.16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성 별	Pearson상관계수	.069*
	유의확률(양쪽)	.028
	N	1000
연령별	Pearson상관계수	-.046
	유의확률(양쪽)	.146
	N	1000
지역별	Pearson상관계수	-.004
	유의확률(양쪽)	.888
	N	1000
직업별	Pearson상관계수	.057
	유의확률(양쪽)	.071
	N	1000
학력별	Pearson상관계수	-.102**
	유의확률(양쪽)	.001
	N	1000
소득별	Pearson상관계수	-.044
	유의확률(양쪽)	.164
	N	1000
종교별	Pearson상관계수	.074*
	유의확률(양쪽)	.019
	N	1000
정치정보 습득경로	Pearson상관계수	.039
	유의확률(양쪽)	.221
	N	998
대통령 지지도 (지지하는지 여부)	Pearson상관계수	.457**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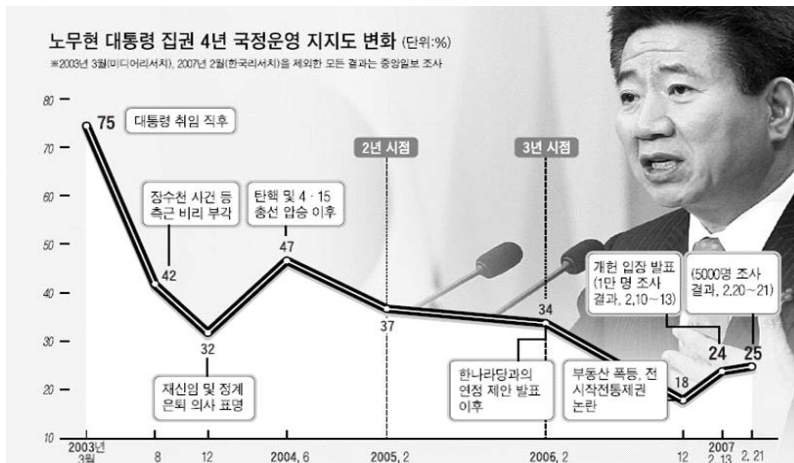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과 대통령의 지지도를 묻는 문항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음을 <표 5>를 통해 알 수 있다. 분석결과 나온 피어슨 상관계수 값을 비교해 보더라도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정당지지도 역시 중요한 상관성이 있었고 두 요인 모두 계수값은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 지지여부 형태로 묻는 문항과의 상관성은 계수값 0.457로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요인과는 차별적으로 응답자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가 사실상의 국정 수행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응답에 있어 경제적인 요인이나 비경제적인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요인이 부분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총체적 요인을 고려한

응답자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긍정과 부정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설문문의 구성도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아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3. 결과 활용 측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낮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분명한 기준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지지도 역시 국민 개인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호와 비선호를 표방하는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기초반 높은 지지율로 출발하였다가 점차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정서가 강해지는 평균적인 국정 평가 추세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층 결집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일종의 비판적 조정(critical realignment)처럼 정치 권력을 바꾸는 선거에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에도 응답자의 속성에 따라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Nardulli, 1995).



〈그림 6.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추이〉

(출처: 중앙일보 2007년 2월 25일자)

〈그림 6〉에서 보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단기간 높았던 지지도에서 급전직하하여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로 인하여 ‘재신임 및 정계 은퇴 의사 표명’이후 탄핵 국면을 치닫는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 및 지지유보(5점 척도의 지지도 조사에서 보통으로 응답)층에서도 지지표명을 하며 2004년 6월 조사에서는 50%가까운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높은 지지도로 여겨지지만 대통령 지지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높다’ 또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실험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 문항에서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들에 대해 ‘얼마의 지지율’을 대통령의 지지율로써 높다고 판단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표 6>의 교차 분석표를 얻을 수 있었다.

<표 6> 대통령 국정수행 응답자들의 ‘높은 지지도’에 대한 인식

		높다고 판단되는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의견								전체
		30% 내외	35% 내외	40% 내외	45% 내외	50% 내외	55% 내외	60%대 이상	무응답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매우 잘하고 있다	5	7	16	6	20	5	16	5	80
	다소 잘하고 있다	26	19	74	22	50	10	39	14	254
	다소 잘 못하고 있다	41	41	78	19	59	7	40	9	294
	매우 잘 못하고 있다	63	16	38	14	44	11	29	5	220
	무응답	23	9	26	7	37	8	16	26	152
전 체		158	92	232	68	210	41	140	59	1000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의 응답자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분석 결과만으로는 응답자들의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와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다. 그래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과 부정에 대한 평가를 한 응답자 전체(무응답은 결측처리함)에서 긍정 비율을 산출하면 약 39.40%가 나오게 된다. ‘높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지지율’ 문항에서 무응답을 결측 처리하고 나머지 문항을 서열척도화하여 점수를 매겨 보았다. 첫 번째 보기문항인 ‘30%내외’를 1점으로 하고 마지막 보기문항인 ‘60%대 이상’을 7점으로 하여 기술통계값을 <표 7>과 같이 구했다.

<표 7> ‘높다고 판단되는 대통령 지지율’ 문항의 기술통계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높다고 판단되는 대통령 지지율	941	1	7	3.81	1.963

〈표 7〉에서 도출한 평균값을 구간으로 대입하여 환산하면 3점과 4점 사이에서 4점쪽으로 0.81만큼 더 진행한 위치에 있으므로 44.05%가 평균으로 추정된다. 즉 2차 실험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대통령 지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평균적인 값은 44%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사에서 구해진 대통령의 긍정평가 39.40%는 절대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다면 대통령 지지도를 높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사되는 시점이나 조사 방법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 대상(조사에 선택 또는 참여하는 사함)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정 시점의 대통령 지지도를 높거나 낮다고 단정지어 밝히는 것은 지극히 자극적인 언론의 보도행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우정엽 외, 2011).

V. 결론 및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지지도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분석하여 좀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나 이 내용을 토대로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될 정치 권력에 해석적 오해(analytical misunderstanding)가 발생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이후 국민들의 체감 지지도와 언론에 보도되는 조사 결과의 괴리를 어떤식으로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밝혀둔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설명력 있는 조사 및 결과의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설문 기획측면이다. 현재 많은 대통령 지지도 조사 문항이 ‘대통령으로서 일’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실험조사를 통한 분석을 해 본 결과, 조사 응답자 중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불과 5%미만이였다. 후보자를 선택하는 집중도가 높은 선거여론 조사에서도 정책 효과 변수를 포함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송근원, 2011).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일’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적합할 것이며 굳이 ‘대통령의 일’을 묻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정보 습득 밀도가 높은 선거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evaluation)보다는 총체적인 후보에 대한 선호(preferences)가 작동된다고 볼 때 ‘대통령의 일’을 평가하기 보다는 선호와 비선호를 밝히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Milton Lodge et al., 1995).

한편, 척도에 있어서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응답하지 못하는 4점척도 방식은 5점 척도로 선택지를 줄 때보다 더 작위적인 응답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활용자의 관점에서는 4점척도의 결과가 분명 매력적일 수 있지만 재질문을 통한 강제분류까지 해야 하는 조사과정을 감안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5점 척도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 분석 측면이다. 2011년 9월에 실시한 1차 실험조사 문항 중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문항(대통령으로서의 일을 잘하는지 여부)과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비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그리고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관한 문항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를 가지는 문항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설문이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연관된 일, 즉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묻기 보다는 응답자에게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며 전문가적인 평가의 개념을 내포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셋째, 결과 활용 측면이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높고 낮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언론에서 정하는 감정적(emotional)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매우 낮았다는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림6>에서 보듯이 집권 4년 차까지 대체적으로 30%대 중반 이상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처럼 대통령 지지도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여부를 응답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지지도는 자신의 지지층 비율이 근간(base)이 될 것이다. 모든 대통령을 동일한 조건으로 획일적 잣대로 누구보다 더 높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대통령 지지도를 ‘높다’ 또는 ‘낮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국민(응답자)이라면 여론조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지도라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인가’라고 직접 묻고 대통령 지지도 조사 문항의 결과와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잣대는 만들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시도를 통해 2차 실험 조사의 대통령 지지도 결과가 높은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음을 밝힐 수 있었고 이 분석에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과 지지하지 않는 응답 모두의 의견을 구한 것이므로 더욱 객관적인 비교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제안

대통령 지지도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통령 개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추진력을 가지고 국정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통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끔 만들어 주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체감만족도와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수용 감정의 괴리에서 출발했다. 이것을 설문 기획 측면, 통계 분석 측면, 결과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시도한 목적상의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 지지도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데는 더 추가적인 연구방법과 조사방법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번 연구는 제한된 실험조사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차체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정교화할 수 있는 1개 문항이 아닌 다수의 문항을 통한 실험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었지만 ‘대통령의 일’을 이해하고 평가가능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준의 개발과 다른 차원의 문항 구성도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는 통계 분석 측면에서 주로 상관 분석을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평가하는 문항과 단순히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과의 선형관계를 입증하는 데 치중하였다.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환하여 로짓회귀분석 등 좀 더 심화된 통계적 분석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지지도와 경제적 요인과의 상관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과제로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사례나 같은 나라의 여러 대통령을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셋째는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술적인 통계값을 도출하여 대통령 지지도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응답자 인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사결과와 언론 노출에 많이 영향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매체별 수용행태나 언론 매체 보도 정보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량적인 분석 방법을 벗어나 실제 조사 결과를 기사화하는 언론인과 이를 수용하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FGI(집단심층면접)와 같은 정성조사를 추가하면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듯 현재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 문항의 문제와 한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문항의 중요성과 조사 결과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점진적인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3. “한·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이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비교 연구.” 《세계지역 연구논총》 24(1):27-47.
- 가상준. 2005. “대통령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 선거: 1952년-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1):153-174.
- 강경태. 2004. “부시(George W. Bush)대통령 지지도 분석.” 《미국학논집》 36(2):5-28.
- 송근원. 2011. “후보자 득표율 예측 모형과 지표의 구성: 2010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12(1):31-63.

- 우정엽 · 김지윤 · 문중배. 2011. “표집틀 설정과 표본추출방법에 따른 정치성향 분석의 문제점: 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과 전화번호부 추출방법 비교.” 《조사연구》 12(1):155-176.
- 이강로. 2010.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 지지.” 《대한정치학회보》 18(1):49-74.
- 이근수. 2009.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취임1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105-137.
- 이정호. 2007.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마케팅 리서치 비법노트.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순영. 2004. 조사연구를 위한 표준화된 설문작성법. 자유아카데미.
- John Zaller and Stanley Feldman. 1992. "A Simple Theory of Survey Respons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Milton Lodge et al.. 1995. "The Responsive Voter: Campaign Information and the Dynamics of Candidate Evalu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Narduli. 1995. "The Concept of a Critical Realignment, Electoral Behavior, and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Theodore J. Lowi, Benjamin Ginsberg and Kenneth A. Shepsle. 2010. *American Government*(11th). W.W. Norton & Company.